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복음 마르코 1:7-11

말씀 <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 즉 회개 후 죄를 씻어 내기 위한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와 벌을 모두 사해 주고, 인간을 구원하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의 물은 일차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의 물은 과거를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마에 물 부음을 받으면서 과거의 나는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자격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하느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나 자신을 내어 맞기고,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월 12일(화)	연중 제1주간 화요일		교 무 금 주일헌금	\$ 3,410.00 \$ 635.00
1월 13일(수)	연중 제1주간 수요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530.00 \$ 415.00
1월 14일(목)	연중 제1주간 목요일		사회복지 성물방	\$ 235.00 \$ 355.00
1월 15일(금)	연중 제1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700.00 \$ 00.00
1월 16일(토)	연중 제1주간 토요일		합 계	\$ 6,280.00
1월 17일(일)	연중 제2주일	오전 10시	미사참례자	학생: 0명 성인: 48명
교무금 봉헌자	서희석(3-12월)서량(1-12월)김도철(12-3월)구준모(1-2월)신영후(12월)김영숙.김선식.윤영자 이상인,김상돈.지복원.김규대.김중순.조영숙(1월)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성모님에 대한 4가지 믿을 교리

(1)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 7,14) 마리아께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 이후에도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동정은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줍니다. 성경에 ‘말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탓에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외아들 또한 말아들이라고 했었고, 사촌 관계를 형제라고 표현했던 당시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동정 잉태에 대한 믿음은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며 때가 찼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칭호는 마리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신분이 간접적으로 밝혀졌습니다.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선포)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해야 하기에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원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죄성이라는 특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1858년 프랑스 루르드 성모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4) 마리아의 승천

(1950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선포)

마리아는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우리도 받게 될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표지가 됩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 안나/원정은. 카타리나/백정심. 막달레나 전기례. 베레나/김나미. 로사/김옥륜. 세실리아 추소연. 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 수산나 김초지. 마리아/이규청. 제노비아/엠모니카 배미성. 오티리아/박모란. 글라라/고공자. 벨라뎃다 신용경. 그레고리오/이상일. 마리아/곽화근. 요한 신상철. 사무엘
- 기도 부탁하실 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 박율리아. 916-990-6531/박프란치스코.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생		
연			생		
연			생		

간
장
종
지

◎ 그 날 ◎

그 날 천사들이 구름 사이로 날아다니고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 소리 유다 광야에 메아리쳤다.
수선화 꽃밭 몇 개 안고 온 바람이
요르단 강물에 꽃향기 풀어 놓고, 강언덕 일제히
때아닌 연화꽃 발갈게 피어났다
예수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던 날

홍윤숙. 데레사 시인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Print N Signs</p> <p>Signs/Banners/T-Shirt Wrap/Windows Tint Soheil Samiee (916)844-0280/914-3794 PrintsNsigns16@gmail.com 9336 La Riviera Dr. #B</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 FM주파수 107.9 (야외미사)</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미사 중단 안내

기간:1월10일부터 1월31일까지

2.코비드19 확산 예방차원의 본당지침

- ① 모든 미사참가자 코비드검사 적극 권장
작년 12월6일부터 미사참가자는 무증상이라도 코비드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② 필수적인 코비드검사 대상자
사무실, 전례참가자(복사, 독서, 찬양, 반주포함) 헌금위원 등 기타 모든 봉사자
- ③ 검사결과 확진(양성반응)시
사목회장 또는 부제님께 즉시 연락바랍니다.
- ④ 본당건물/사제관 실내소독 완료(1월5일)
- ⑤ 향후 사무실 용무는 1명씩 입장 처리합니다.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고통중에 있는 교우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본당 사무실 운영 및 이용 안내

당분간 재택근무로 전환하며 1월16일(토)부터 토요일오후와 일요일오전에는 현장근무를 합니다. 대면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실 용무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무장 박프란치스코(909-573-5322)

4.교우금/주일헌금 봉헌 및 광고비 납부 안내

당분간 가급적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5.Donation Statement 신청안내

2020년 텍스리턴 관련 Donation Statement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6.21년도 달력 배부중 (사무실)

7.감사합니다.

광고비:메리서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300)
공리장 의사(\$200)수지미용실(\$100)
감사헌금:손창식(\$100),전우성(\$50)익명(\$20)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평일미사;당분간 없습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교우금과 주일헌금 봉헌

교우금과 주일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신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사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Check 발행시: ST. J.H.C.)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전례봉사	주님세례축일(1월10일)	연중제2주일(1월17일)	연중제3주일(1월24일)	연중제4주일(1월31일)
복사				
헌금위원				